

님의 침묵(沈默)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만해스님 '님의 침묵'중에서

만해스님은 선사(禪師)이자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이자 시대를 읽어내는 정신의 지도자였다. 그렇듯 현시대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성인들에게 삶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스승과도 같다.

매년 8월, 강원도 인제의 만해축전을 찾아 스님의 덕화에 숙연함으로 마주하면, 한 사람의 각성과 용기있는 실천이 거대한 파동으로 다가와 아직도 곁에 있는 듯 깊은 울림을 전해온다.

오래전 조화로운 삶과 '배려'의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에 들어선 때가 있었다. 때마침 모처럼 읽은 '님의 침묵'은 전과 다르게 새로움으로 마음을 흔들여 놓았다.

흔히 배려라 함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도와주고 보살피는 일이라 하겠지만, 이때만큼은 이 시구절을 되뇌이며 '나 자신에 대한 배려가 있구나' 라는 강한 인상을 새기게 되었다.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는 것, 강한 의지와 믿음은 어떠한 상대방도 아닌 나를 위한 너무도 소중한 배려라는 것이 님의 침묵이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간다. 인간은 그렇게 본래의 품성으로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를 보살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내 마음에 감춰져 얼핏 보이지 않듯이 침묵에 숨어 있는 경전과도 같다.

최근 국민 모두가 큰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다. 하지만 믿는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줄 아는 까닭에 새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을.

님의 침묵 (沈默)

萬海 - 韓龍雲

님은 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 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의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에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 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